



**특집** \_ 제주도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CEO 포럼 개최 모국서 사회공헌할 ‘글로벌 한상 드림’ 발족  
**화제** \_ 지구 저편 에티오피아 달군 한류 열기 아디스아바바대 한국어 교실도 ‘복적’





# 무령왕릉 출토 금제 관 꾸미개 관모에 꽃았던 장식품



1971년, 백제 연구와 관련해 기념할 만한 일이 있었으니, 바로 공주 무령왕릉의 발굴이다. 무령왕릉은 백제 제25대 무령왕(武寧王, 재위 501~523년)의 분묘이며, 삼국시대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그 주인공이 밝혀진 무덤이기도 하다. 공주 송산리고분군 중의 하나인 무령왕릉은 1971년 7월 송산리 6호분의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우

연히 발견됐다.

무령왕릉에서는 4천600점에 이르는 많은 유물이 출토됐으며 그 대표적인 유물 중의 하나가 금제 관 꾸미개이다. 관 꾸미개는 모두 4점으로 왕과 왕비의 머리 부분에서 2점씩 쌍을 이룬 상태로 확인됐다.

왕의 관 꾸미개(국보 154호)는 얇은 금판에 인동당초무늬와 불꽃무늬를 기본 문양으

로 하여 맞새김했다. 인동당초무늬는 전체적으로 중앙으로 모아지며 올라가고 타오르는 불꽃의 모습을 이룬다. 관 꾸미개의 전면에는 등근 모양의 작은 달개가 금실에 매달려 있어 장식성이 강하고 화려하다.

왕비의 관 꾸미개(국보 155호) 역시 인동당초무늬와 불꽃무늬 장식을 맞새김했다. 그러나 왕의 것에 비해 도식화됐으며 좌우 대칭 구도로 되어 있다는 점, 등근 달개가 매달려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관 꾸미개 중앙에는 7장의 연꽃잎으로 장식된 대좌 위에 활짝 핀 꽃을 꽃은 화병이 있으며, 그 주위로 인동당초무늬와 불꽃무늬 장식이 배치돼 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관 꾸미개는 문헌 기록이나 출토 위치 등으로 미루어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모에 꽃았던 장식품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



1.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의 금제 관 꾸미개
2.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비의 금제 관 꾸미개. 오른쪽 점선으로 동글게 표시한 것은 나중에 새로 찾은 부분이다.
3. 무령왕릉 내부의 실제 크기 복원 모형. 실제 왕릉은 영구 폐쇄됐으며, 그 옆에 복원 모형이 세워져 있다.
4. 무령왕릉의 내부 중 현실(관이 안치된 방)을 옆에서 본 복원 모형



04



12



### 표지 이야기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 제28차 운영위원회 및 제29차 리딩CEO 포럼'에 참석한 60여 명의 한상(韓商)은 국내외 동포 청소년에게 장학사업 등을 펼치는 '글로벌 한상드림'을 발족시키고 내년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경상남도 창원시를 선정했다.

- 02 한국의 얼** 무령왕릉 출토 금제 관 꾸미개  
관모에 꽂았던 장식품
- 04 특집** 제주도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CEO 포럼 개최  
모국서 사회공헌할 '글로벌 한상 드림' 발족
- 06 동포소식** 에라도르 한인들, 지진 현장서 구호 활동 외
- 09 동포 캘린더** 16개국 한인체육회장, 충남서 모여 협력 방안 모색 외
- 10 기획** 고급 인력이 중심된 네덜란드 한인사회  
기업 이민 등으로 안정된 생활
- 12 화제** 지구 저편 에티오피아 달군 한류 열기  
아디스아바바대 한국어 교실도 '복적'
- 14 글로벌코리안** 제15대 유럽총연 회장에 뽑힌 남창규 씨  
'에버리 피셔상' 받은 재미동포 바이올리니스트 선 리  
아르헨티나 문화부 차관보 된 한인 2세 변겨레 씨
- 16 지구촌통신원** 미국 소재 임시정부 비행학교 '미국역사기념물' 지정 추진  
독립군 비행사 양성소, 대한민국 공군 모태
- 1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와 어음·수표 제도  
위조·변조 여부 확인 필수
- 18 한민족 공감** 박근혜 대통령 멕시코 공식방문  
에너지 사업 등 인프라 진출 발판
- 19 OKF 뉴스** 동포 청소년 돕는 'OKFriends 봉사단' 출범 외
- 20 동포의 창** 우크라이나에 큰 감동 전해준 'K-클래식'  
정승용 \_ SP글로벌 작곡·지휘자
- 22 동포문학** 어느 후예(後裔)들  
정경선 \_ 마케도니아 \_ 2015 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소금으로 숙성시켜 맛을 낸 안동 간고등어  
시간을 가둔 염장 생선의 최고봉
- 26 재단 공지**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도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CEO 포럼 개최

# 모국서 사회공헌할 ‘글로벌 한상 드림’ 발족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4월 27~29일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한인 경제단체장과 한상(韓商) 리딩CEO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한상대회 제28차 운영위원회 및 제29차 리딩CEO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세계한상대회의 결과를 검토하고 올해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9.27~29)의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세계한상대회는 재단이 2002년부터 매년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한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4천여 명이 참석해 모국과 동포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모색해왔다.

운영위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중국한국상회, 동남아한상연합회,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유럽한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등 대륙별·업종별·세대별 동포 경제단체장이 참여했다.

올해는 한상이 국내외 동포 청소년에게 장학사업 등을 펼치는 ‘글로벌 한상 드림’을 발족시키고 내년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경상남도 창원시를 선정했다.

### ‘글로벌 한상 드림’ 동포·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상들이 고국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으고 4월 27일 사단법인 ‘글로벌 한상 드림’ (가칭)을 발족했다.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과 리딩CEO 등 60여 명은 27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한상 드림’의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 단체의 발기인은 홍명기 미국 듀라코트그룹 회장, 한창우 일본 마루한그룹 회장, 송창근 인도네시아 KMK그룹 회장, 오세영 라오스 코라오그룹 회장, 조병태 미국 소네트그룹 회장, 정진철 미국 로열아이맥스그룹 회장 등 8명이다.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들은 내년도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경상남도 창원시를 선정했다.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에서는 ‘한상 네트워크’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되도록 대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글로벌 한상 드림’은 외교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계획이다.

앞으로 ▲올바른 한국 알리기 사업 ▲모국어 교육 및 장학 사업 ▲국내외 한상 교류 사업 등을 펼친다.

올바른 한국 알리기 사업으로는 재외동포 및 국내 소외계층 청소년 간의 교류 활동,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 역사 교육



## 사단법인 글로벌한상드림(가칭) 발기인 및 창립총회

2016. 4. 27(수) | 롯데호텔제주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와 리딩CEO 포럼 참가자들은 4월 27일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한상 드림' 창립총회를 열었다.

활동, 재외동포 공공외교 캠페인 및 문화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국내의 재외동포 차세대를 대상으로 모국어 교육에 나서고, 재외동포 청소년과 국내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청소년과 함께하는 '글로벌 캠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중소기업과 교류의 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과 국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총회 임시의장을 맡은 홍명기 회장은 "회비와 기부금을 모아 50억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무국은 당분간 서울시 서초동의 재외동포재단에 두고 초대 이사장은 이사회를 열어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비즈니스 교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소외계층을 돕고 차세대들을 육성·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고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글로벌 한상 드림'을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 한상운영위 차기 대회 개최지 창원 선정

한상운영위원회는 2017년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경상남도 창원시를 확정했다.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들은 4월 27일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차 회의에서 서울시와 경합한 창원시를 내년 개최 장소로 낙점했다.

운영위원회는 세계한상대회가 열리기 전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주관해 열렸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제14차 대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오는 9월 27~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최하는 제15차 대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한 후 차기 개최지를 선정했다.

운영위원장인 조규형 이사장은 "대회가 창원시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행사를 유치하려는 열정, 다수의 국제대회 개최 경험, 훌륭한 인프라로 운영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시는 내년 8월 창원컨벤션센터(CECO)를 증축, 완공하고 이곳에서 대회를 열 계획이다. 운영위원들은 경쟁에서 탈락한 서울시를 2018년 개최지 후보지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운영위와 리딩CEO 포럼 참가자들은 27일 오후 제주도 투자유치 관련 설명을 들은 뒤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재 만찬에 참석했고, 28일에는 세계한상대회가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와 인근 지역을 둘러보았다. **창**

## 에콰도르 한인들, 지진 현장에서 구호 활동

최근 강진으로 최악의 재난 상황을 겪는 에콰도르의 한인들이 피해 지역을 찾아 자발적으로 구호 활동을 벌였다. 에콰도르 한인회, 우리나라 진출 기업, 주에콰도르 한국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 등은 4월 23~24일 지진 피해 지역인 에스메랄다스 주 차망가와 무이스네를 방문했다.

4월 16일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 이후 700차례 이상의 여진이 이어진 에콰도르에서는 4월 24일 현재 130명이 실종 상태고 1만2천500명이 다쳤다. 건물 7천 채가 완전히 파괴되고 2만6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인들은 식료품·의약품이 담긴 구호 키트 1천여 개와 텐트·매



에콰도르 한인회와 대사관 관계자 등이 에스메랄다스 주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

트리스·모포 등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고 잔해물 치우기, 피해 아동 미술·음악 치료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이들이 방문한 차망가시는 이번 지진으로 건물의 80%가 피해를 보고 이재민 4천여 명이 구호물자 부족 상태에 놓인 지역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에콰도르는 이미 지난해부터 유가 하락과 달러화 강세로 수출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37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강진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졌다. 구호 활동에 참여한 이은철 주에콰도르 대사는 파올라 카베사스 에스메랄다스 주지사에게 “진정한 친구의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격려를 전했고, 카베사스 주지사는 감사를 표했다.

## 전통·현대 문화 소개한 시드니 한민족축제 성황

호주 시드니 한인사회의 단결을 피하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현지인에게 알리기 위한 시드니 한민족축제가 4월 2일 달링하버 텀발롱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시드니한민족축제위원회, 주시드니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가 공동 주최해 전통 무대, 열린 무대, 한류 무대 등 그 어느 해보다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했다.

오전 11시 개막식에 이어 시물놀이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서는 한복 입어 보기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비롯해 전통무용 등 많은 볼거리가 제공됐고, 주말을 맞아 유명 관광지 달링하버에 모인 많은 사람이 함께했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



시드니 한민족축제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의 예능보유자인 김대균 명인이 공연을 하고 있다.

산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의 김대균 명인이 두 차례의 아슬아슬한 공연을 펼쳐 많은 한인과 현지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무리 행사인 오후 8시 K팝 경연에는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끼와 재능을 발산했다. 뉘른에서 온 남녀 혼성 6인조 ‘AO Crew’ 팀은 그룹 빅스(VIXX)의 ‘체인드 업’을 불러 우승, 1천 호주달러(약 90만 원)의 상금을 받고 한국에서 열릴 세계대회에 참가할 기회도 얻었다.

한편, 가상현실(VR) 전문기업인 에프엑스기어는 한류 관광 활성화를 위한 VR 콘텐츠 시연회를 열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 한국계 과학자 피터 리 MS 부사장, 미 사이버안보 책임 맡아

한국계 컴퓨터 과학자이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연구부문 책임자인 피터 리(55) 부사장이 미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대책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됐다. 백악관은 최근 리 부사장을 포함해 10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이버안보위원회 위원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안보위원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갈수록 점증하는 미국 정부 및 산업계 등에 대한 전방위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자 설치한 특별기구로, 미 정부의 해킹 대응책 등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1960년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 리 부사장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저명한



한국계 컴퓨터 과학자이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연구부문 책임자인 피터 리(55) 부사장이 미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대책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됐다.

과학자로 통한다. 미시간대에서 학사와 박사 학위를 마치고 2000년 40세의 젊은 나이에 카네기 멜런대 교수가 됐다. 카네기 멜런대에서 컴퓨터사이언스 학과장과 리서치 담당 부학장 등을 맡아 소프트웨어 신뢰성, 프로그램 분석, 보안, 언어 디자인 등을 연구했으며 당시 컴파일러 검증에 관한 첨단 소프트웨어 보안기술(Proof-carrying code)을 공동 개발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미 정부의 과학 프로젝트인 국방부 산하기구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도 여러 업적을 남겼다. 리 부사장은 앞서 2013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소장에 취임해 미래기술 연구를 주도했다.

## 미 수도권서 힐러리 지지 한인 자원봉사 조직 출범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경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한인 풀뿌리 자원봉사 모임 '코리아안 아메리칸스 포 힐러리'(KA-HILL)가 워싱턴DC를 중심으로 한 미국 수도권 조직을 출범시켰다. KA-HILL(회장 로라 엄)은 4월 13일 한인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 주 애넌테일의 한 식당에서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DC의 한인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 지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DC 지역 KA-HILL'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제리 코넬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은 공화당의 유력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을 거론하며 “지금은 트럼프가 멕시코와 무슬림계 미국인을 겨냥하고 있지만 다음 타겟은 한국계 미국인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식 차별주의를 막으



한인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 지도자 등이 '워싱턴DC 지역 KA-HILL' 발대식을 개최했다.

려면 반드시 클린턴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은 “7개월 후 열리는 올해 대선은 미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마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모멘텀”이라며 “지금까지 미국이 이룩한 진보를 지키고 한인사회를 진정으로 발전시키려면 클린턴을 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원균 민주당 워싱턴협의회장은 “클린턴은 한국과 미국이 굳건한 동반자임을 확신하고 있

고 한인사회를 위해 정말로 될 수 있는 후보”라며 “1세대와 2세대가 하나가 돼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A-HILL은 3월 22일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서부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발대식을 연 바 있다.

## 모국 경제 활로 뚫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출상담회 울산서 개최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모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한국 발전의 심장부인 울산광역시에서부터 뚫어보고자 마련하는 수출상담회가 4월 22일 울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2층에서 막을 올렸다. 국내 최대 규모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기출)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사장 박노황)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이날부터 3일간 울산시 일원에서 '제18차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개최식은 월드옥타 홍보 영상 상영, 개회사·환영사·축사, 유관기관장 표창 수여식, 월드옥타 35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식, 환영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구축과 모국 경제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울산 대회에는 70개국 100여 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월드옥타 회원 600여 명이 참가했다.

박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울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확인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기회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울산시 또한 새롭게 준비하는 산업을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진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병철 월드옥타 이사장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정부는 창조경제와 4대 구조개혁 등을 추진하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려면 세계 곳곳에서 성공 신화를 쓰고 계신 동포 경제인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대회 기간에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에 수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했다. 울산 지역 중소기업들은 한 상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고, 울산 투자 유치 현장 설명회와 생태산업단지 성공 모델 설명회를 통해 투자 유치의 기회를 만들었다.

해외 취업 상담회에서는 5명의 청년이 월드옥타 회원사에 취업했다. 구직자 가운데 추가로 서류 전형, 업무 역량 평가 등을 거치지 때문에 채용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0개국 100여 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월드옥타 회원 600여 명이 참가한 '제18차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막식이 울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제18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서 참석 내빈들이 월드옥타 35주년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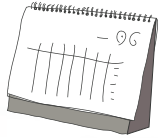
4월 24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가 열리고 있다.

24일 열린 폐회식은 폐회사, 환송사, 임명장 수여, 공로패 표창, 연합뉴스 사장 주최 환송 만찬, 초청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노황 사장은 환송사에서 "만리타국에서 차별과 냉대를 딛고 맨주먹으로 기업을 일구신 월드옥타 회원 여러분은 모국 상품의 수출길을 뚫어주고, 동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가 하면, 한류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는 캐나다 몬트리올지회, 중국 쑤허(三河)지회가 신규 지회 임명장을 받았다. 이로써 월드옥타의 지회는 70개국 142개로 늘어났다.

1981년 창립한 월드옥타는 모국 상품의 수출 확대 및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국내 유관단체,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유대 강화를 꾀하는 동시에 회원 상호 간 이익 증진과 협조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회원 6천600여 명, 차세대 회원 1만 6천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창**





## 16개국 한인체육회장, 충남서 모여 협력 방안 모색

세계한인체육회장총연합회(회장 권유현 · 사진)는 5월 18~20일 제97회 전국체전(10월 7~13일) 개최지인 충청남도 일대에서 '제2회 세계한인체육회장대회'를 연다. 세계 16개국 회장단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는 올해 대회는 대한체육회장 간담회와 환영 만찬, 충남지사 면담 및 오찬, 전국체전 관계자 회의, 경기장 및 숙박 시설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세계한인체육회장총연합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정받은 18개국 재외동포 체육단체로 구성됐다.



## 재미 입양 한인들, 고국 미혼모 · 신생아 돕는다

미국 보스턴 지역에 거주하는 입양 한인들의 친목 모임인 '캐드토크'(KADtalk · 회장 김새봄)는 6월 4일 브라이턴에 있는 TPSF(The Presentation School Foundation) 커뮤니티센터에서 성금 모금 행사를 연다. 이날 모은 성금은 전역 한국의 미혼모가족협회(KUMFA · 회장 목경화)에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는 미혼모를 다룬 휴먼 다큐멘터리 '미쓰 마마(A Bittersweet Joke) 상영회, 대화의 시간 등으로 꾸며진다.



## '뉴질랜드와 한국의 조화' 주제로 미술작품 공모

오클랜드한인회(회장 김성혁 · 사진)와 재뉴미술인협회는 한국계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와 함께 순수미술 공모전을 연다. 8월 28일 까지 양국의 독특한 문화와 그 조화를 화폭에 담은 유화, 아크릴 페인팅, 혼합미디어아트(mixed media art) 등을 접수하며 크기는 50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등과 2등 입선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500달러와 300달러의 상금을 준다. 문의는 재뉴미술인협회(☎ 021-990-914)로 하면 된다.



## 재일민단, 구마모토 지진피해 동포 돕기 위한 의연금 모금

재일민단은 4월 14일부터 발생한 구마모토(熊本) 지진으로 피해를 본 동포와 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구마모토 지진 피해자 지원 대책본부(본부장 옹공태 민단 중앙본부 단장 · 사진)를 설치하고 성금과 구호물자를 모으고 있다. 모은 성금은 구마모토의 이재민 동포들을 집집마다 찾아가며 구호물자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의연금 계좌번호는 아스카신용조합 에비스지점 보통예금 0074059이며 계좌명은 구마모토 지진 의연금(熊本地震義捐金)이다.



## 퀸즐랜드 '한인의 날' 8월 13일 개최

호주 퀸즐랜드주한인회가 주최하는 '2016 한인의 날' 행사가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킹 조지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 전통예술 공연, 한국 현대 문화예술 공연, 태권도 시범, 타민족 전통문화 공연 등이 펼쳐진다. 한인의 날 행사 공연 참가 문의, 자원봉사 신청, 행사 후원 문의 등은 한인회 사무국에 이메일(info@ksqld.org) 혹은 전화(0424-724-624)로 하면 된다.



## 미주 한인들 국내 부동산 박람회 참가

'전미주 한인 부동산 총연합회'(KREAA · 회장 남승헌)가 6월 10~1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아시아부동산 박람회에 참가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미국 내 한인 부동산업 종사자들의 모임인 이 연합회는 지난 3월 창립했으며 1만 명이 넘는 미국 내 한인 부동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지역 간 정보 공유, 한인과 주류사회의 발전,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투자 연결망 개척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고급 인력이 중심된 네덜란드 한인사회 기업 이민 등으로 안정된 생활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당시 연인원 5천322명의 병사와 6척의 해군함정을 파견했다. 이 가운데 121명이 전사하고 600여 명이 부상했다. 한국이 2002년 월드컵 축구 4강의 위업을 이루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거스 히딩크 감독의 모국으로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네덜란드에는 총 2천663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시민권자인 외국 국적 동포는 130명, 영주권자는 861명이다. 유학생은 942명이며, 한국계 입양인은 4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한인의 네덜란드 진출은 1960년대 말 고려무역 주재원 5명의 입국이 그 시초를 이룬다. 그 후 KOTRA의 전신인 중소기업무역진흥공사가 이곳에 지사를 두어 다시 몇 명이 이주했다.

1970년대에 독일의 광산 근로자 출신이 일부 들어왔고 태권도 사범도 입국했다. 일본계 선박회사에 근무하던 한인이 그대로 남아 자리를 잡은 경우도 있다.

1980년대에는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귀국하지 않고 남은 사람이 여럿 있다. 이들은 네덜란드에 수년 머물면서 어느 정도 적응력이 있던 터에 자녀의 교육 때문에 귀국을 망설이다 주저않게 된 것이다. 유학생도 많고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연고 이민도 많으나 네덜란드에서 동포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은 기업 출신 이민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이민의 경우 가족이 동시에 이주했고 대부분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며 수입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비교적 안정되고 다른 유형의 가족보다 상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한인회도 동포와 상사 주재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인회장은 동포 중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2명 중 한 명은 동포 중에서, 나머지 한 명은 주재원 중에서 선출한다. 2명의 감사도 이런 식으로 분담하고 있다. 이곳 한인회는 40명의 운영위원을 두고 있으며 동포와 상사 주재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인회의 행



사로 대표적인 것은 여름 야외회와 겨울의 송년모임이 있다.

한인단체 중에 특이한 것으로 네덜란드의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를 들 수 있다. 1907년 고종 황제의 밀명으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돼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외치다 순국한 이준 열사의 기념관은 광복 50주년을 기해 1995년 8월 5일 네덜란드의 덴 하그(헤이그)에서 문을 열었다. 연면적 180평의 3층 건물인 이준기념관은 당시 이 열사와 함께 파견됐던 이상설 및 이위중 선생 기념실, 한국 역사실, 한국 문화실, 세계 평화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암스테르담 한글학교는 1993년에 문을 열었다. 암스테르담 한글학교는 올해 3월 5일 봄 학기를 개강했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240여 명이 공부 중이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좌반' 등록생도 수십 명에 달한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다문화 가정 청소년, 외국인 등록생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학교는 한인 2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한국 사회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에 힘쓰고 있다.

로테르담 한글학교는 1996년 개교했다. 로테르담 시 당국은 2010년 한인학교에 "그간 전액 지원해 오던 학교 임대료 지원액 4만 유로를 2012년부터는 2만 유로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아메리칸 스쿨' 건물을 주말에 빌려 사용해 오던 한글학교로선 속수무책이어서 도시 바깥의 규모가 작은 곳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사관까지 나서서 설득을 거듭한 끝에 2012년 5월 이런 걱정이 깨끗하게 해결됐다. 아메리칸 스쿨이 연간 임대료를 2만9천 유로로 낮추고, 로테르담 시 투자청이 이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이는 한인 동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현재 총 21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한글을 외국인 또는 동포에게 가르치는 한글반과 초·중·고교 정규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한국인의 현지 적응을 위해 영어와 네덜란드어를 가르치는 성인 네덜란드어반과 성인 영어반이 수준별로 편성돼 있다. 학교는 매년 '아름다운 가게'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금액을 아동을 돕는 기관에 후원하고 있다.

유럽 지역에서 한인사회를 소개하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것이 태권도 사범이다. 태권도 사범은 도장에서 태극기에 경례를 하고 한국말을 사용하게 하는 등 태권도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유럽인에게 전하고 있다. 숫자를 따지기 전에 태권도를 보급하는 사범들의 희생정신이 매우 값지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4천 명이 넘는 입양인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모국을 알기 위해 1991년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아리랑'이라는 국내 한인 입양인 단체를 결성했다. 16세 이상의 청년으로 희망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인 아리랑은 매년 2, 3회 한국 영화를 관람하거나 한국 요리 실습을 하고 입양아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또 여름방학을 이용해 2박3일씩 야외 캠프를 하며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스위스의 '동아리', 스웨덴의 '한국입양아회' 등 유럽 각국의 자생 한인 입양 청년 조직과 연대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창**



2



3

1. 네덜란드의 선원으로 조선 효종 4년(1653)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다 귀국해 '하멜 표류기'를 썼던 하멜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개관식이 2015년 6월 4일 네덜란드 호리콥시에서 열리고 있다.
2.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은 2013년 12월 11일 헤이그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날' 행사에서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3. 한국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2015년 10월 3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입항해 환영식을 하고 있다.
4. 여덟 살 때 네덜란드로 입양돼 서유럽 최초로 한인 경찰이 된 심호보(46) 씨가 2008년 10월 20일 해외 한인 경찰 초청 및 대한민국 명예 경관 위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5. 네덜란드 호리콥시에 있는 마리안하드, 예나플란, 드 레텐보호 3개 초등학교에서 7, 8학년(한국 5, 6학년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수업이 2014년 12월 1일 시작했다. 3개 학교 학생은 13주간 매주 월요일 한 시간씩 한국어 수업을 받는다.
6. 제70주년 광복절인 2015년 8월 15일 네덜란드에서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와 이준열사기념관이 주관하는 광복 70주년 한인족 축전행사가 열려 한복을 입은 동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



5



6

# 지구 저편 에티오피아 달군 한류 열기 아디스아바바대 한국어 교실도 '복적'



아디스아바바대 한국어 교실 초급반에서 수강생 40여 명이 한글을 공부하고 있다.

**폭** 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지구 반대편마저 뜨겁게 달구고 있다. 4월 1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대 한국어 교실에서 만난 여학생 하난 모하메드(21)는 "지금까지 방영된 에피소드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며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다.

"송중기 너무 사랑해요. 유시진 대위 목소리, 얼굴 모두 멋있어요"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한가득 저장된 송중기의 사진을 보여주고는 키스하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한국어 교실 조교를 맡고 있는 메론 세마추(20)는 "다른 한국 TV 드라마는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내려받아 보는데 '태양의 후예'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KBS World가 방영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

에티오피아에서 한국 TV 프로그램의 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0년 전부터 한국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다는 모하메드는 "슬플 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면서 "드라마 속 한국 사람들은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그는 드라마뿐 아니라 '안녕하세요' 같은 예능 프로그램도 좋아한다고 했다.

한국 프로그램을 본 지 6년 정도 됐다는 치온 구아두(19)도 이에 질세라 '꽃보다 남자' '하이리스' '오 마이 비너스' '착한 남자' 등 한국 TV 드라마 제목과 이민호, 신민아, 수지 등 한국 연예인의 이름을 늘어놓았다. 한국 사극을 좋아한다는 엘비스 루케라당가(25)는 "드라마 '추노'를 재미있게 봤다"며 "요즘에는 '대왕 세종' 다시 보기에 폭 빠졌다"고 말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대부분 KBS World나 아리랑TV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는데 '한국 프로그램을 아예 안 보면 안 봤지 한 번만 보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다. 이들은 한





여성 5인조 그룹 '크리스탈 파이브'의 멤버들이 가수 포미닛의 '미쳐' 안무를 연습하고 있다.

국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TV 채널이 오직 2개뿐이어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에는 카나(KANA)TV라는 채널에서 MBC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보고 싶다'를 현지 언어로 더빙해 내보내고 있다.

### “한국 프로그램 한번만 본 사람 없다”

K팝에 열광하는 젊은이들도 넘쳐난다. K팝 팬이 주축인 페이스북의 '에티오피아 한국 팬클럽(Korean Fanclub in Ethiopia)'은 1만 2천 명이 넘는 회원을 두고 있다. 회장 케디르 누레딘(27)은 “페이스북 계정이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실제 팬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아이돌의 춤과 노래를 연습해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10대, 20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성된 여성 5인조 그룹 '크리스탈 파이브'의 리더 사라 데

베베(17)는 “지난해 KBS World에서 주최한 에티오피아 K팝 경연대회에서 걸그룹 포미닛의 '미쳐'로 1등을 했다”며 “올해 2월 에티오피아 한국식당 '하리랑'에서 개최한 대회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다”고 자랑했다. 데베베는 “요즘에는 올해 8월 열리는 대회를 위해 방탄소년단의 안무를 연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탈 파이브의 멤버 솔롬 키플루(21)는 “한국에 가는 게 소원”이라며 “생수통에 한국 공기를 담아와 평생 간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이토록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한국 TV 프로그램이나 음악이 에티오피아 정서와 잘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가수 리헬 기르마(25)는 “한국 TV 드라마나 음악에는 가족·사랑·우정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다”며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인 내용이 많은 서양 문화와 달리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정서에 딱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인 칼키단 테웰데(15)는 “처음에는 부모님이 한국 문화에 너무 빠져든다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함께 한국 TV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고 난 뒤부터는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정은 자연스레 한국어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디스아바바대학에서 올해 4년째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실에는 매년 수강생이 북적인다. 정원이 80여 명인데 200명 이상이 몰려 지원서를 받고, 인터뷰까지 해야 할 정도다.

하지만 치솟는 한국어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아디스아바바 대학에는 아직 정규 한국어학과가 없다. 30년간 중·고교 국어 교사로 활동하다 재작년부터 이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임다니엘 객원교수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의 앞선 IT 등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 수업에 몰리고 있다”며 “중국어처럼 정규학과가 개설돼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



에티오피아에서도 KBS WORLD를 통해 방영되는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디스아바바대 한국어 교실의 하난 모하메드(21) 양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송중기 사진에 키스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

제15대 유럽총연 회장에 뽑힌 **남창규** 씨

## “차세대 정체성 확립에 힘쓰겠다”



“차세대가 어깨 펴고 당당히 살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유럽한인총연합회(유럽총연)가 되도록 일조하겠습니다.”

유럽 24개국의 한인회를 총괄하는 수장에 오른 남창규(66) 신임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3월 11일 그리스 아테네의 디바니 팰리스 아크로폴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15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당선 후 총회에 참가했던 한인회장들은 대부분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2008년부터 4년간 이탈리아 한인회장으로 봉사했고 유럽총연 제13대 이사와 제14대 수석부회장을 지낸 경력이 객관적으로도 입증한다.

남 회장은 “웅변대회, 체육대회, 국토대장정 등의 사업은 한인 차세대들이 유럽에서 당당히 살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했기에 그대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비를 털고 후원

금을 모아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총연 홈페이지(www.koreaneu.com) 활성화에 대한 생각도 털어놓았다. 사이트를 방문하면 유럽 각국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

충북 영동 출신인 그는 대구보건대를 졸업하고서 경북 성주군 보건소에 특채돼 임상병리(기초검사) 기사로 5년간 일하다 부산 위생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15년간 근무했다. 이탈리아와의 인연은 친동생이 맺어준 것이다.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 정착해 여행을 시작했던 동생에게 사업상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해주려고 1995년 잠시 방문했다가 주저앉게 된 것이다. 로마에 한식당 ‘한양가든’을 차렸고, 지금은 이전해 로마 시내에서 ‘비원’으로 상호를 바꿔 운영하고 있다. 120석 규모의 이 식당은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 고객이 80%를 넘을 정도로 붐빈다.

아르헨티나 문화부 차관보 된 한인 2세 **변겨레** 씨

## 한인사회 발전에 헌신한 차세대 리더

한인 2세 변겨레(29) 씨가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문화부 차관보에 임명됐다. 아르헨티나한인상인연합회는 대통령 관보를 인용해 변 씨가 이반 페트렐라 문화부 차관을 돕는 차관보에 발탁됐다고 4월 4일 밝혔다.

그는 1980년 10달러를 들고 아르헨티나에 이민한 변광수(56)·이영미(53) 씨 사이의 장남이다. 부모는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꿈과 비전을 가져라’라는 뜻으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세 아들의 이름을 순우리말인 겨레, 얼(25), 결(20)로 지었다.

이민 후 친구 집을 전전하거나 폐가와 창고에서 기거하며 열심히 일한 끝에 의류 사업으로 성공한 부모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큰 꿈과 비전’을 품기를 바





랐다.

그가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반 페트렐라 시의원과의 인연 때문이다. 2013년 총선이 끝난 후 보좌관으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좌관으로 일하던 그는 페트렐라 의원이 문화부 차관에 발탁되면서 함께 차관보로 정부에 들어간 것이다.

산타페 주 로사리오에서 태어난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대 법대에 입학했다. 2012년 독일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유학했으며, 같은 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모의재판 대회에 아르헨티나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이듬해 졸업과 함께 국제법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9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대학에서 공화당(PRO)에 관여했고, 2012년에는 PRO 청년부 문화부장으로 뽑혀 활동했다. 당시 그는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현지 문화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현지 뉴스 포털 사이트에서 칼럼니스트로 활약한 그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아르헨티나지회에서 차세대로 활동했고 한인상인연합회 이사, 한인전문인협회 총무, 한인문인협회 회원 등으로도 활약했다.



## ‘에버리 피셔상’ 받은 재미동포 바이올리니스트 셀 리

# ‘현재 가장 기대되는 클래식 아티스트’

재미동포 바이올리니스트 셀 리(Sean Lee)가 미국의 권위 있는 클래식 음악상인 ‘2016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을 받았다. 미국 링컨센터는 미래에 거장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갖춘 연주자를 매년 5명씩 선정해 이 상을 준다. 올해 수상자는 줄리아드음대 예비과정의 체임버 뮤직 교수인 셀 리를 포함해 5명이다. 그는 2만5천 달러(약 2천 872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4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한 셀 리는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줄리아드음대와 대학원을 나왔다. 2005년 캘리포니아 얼라이언스 아츠 에듀케이션(CAAE)이 주최하는 ‘이머징 영 아티스트’ 음악 부문 최종 우승자로 뽑혀 2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줄리아드 콘체르토 경연대회,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경연대회, 영 콘서트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오디션 등에서 입상했다.

로버트 리셋·루지에로 리치·이즈하크 필먼을 사사한 그는 드보르자크 뮤지엄, 페닌술라 심포니, LG아트센터, 사라토가 퍼포밍센터 등과 협연했다.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아티스트로 활약하는 그는 현재 줄리아드에서 이즈하크 필먼 교수를 도와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EMI에서 나온 그의 데뷔 앨범 ‘스트라우스 바이올린 소나타’는 ‘아이튠스 톱 20 클래식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에버리 피셔상 수상자인 그는 현재 가장 기대되는 클래식 아티스트이며, 연주는 ‘놀랍도록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에버리 피셔상을 받은 한국인은 이유라, 장영주, 김지연, 대니얼 리, 리처드 용재 오닐 등이다. **창**



# 미국 소재 임시정부 비행학교 ‘미국역사기념물’ 지정 추진 독립군 비행사 양성소, 대한민국 공군 모태

김종우 |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일로스 비행학교·비행대’ 부지 관련 자료 사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세웠던 ‘일로스 비행학교·비행대’ 부지를 ‘미국역사기념물’ (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장태한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UC 리버사이드) 교수이자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 소장은 4월 1일 “일로스 비행장 터를 미국역사기념물로 지정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미국역사기념물로 지정되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먼저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현재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로스 비행학교·비행대는 임시정부가 1920년 2월 20일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일로스 시에 세워진 최초의 독립군 비행사 양성소로 이후 대한민국 공군의 모태로 평가받고 있다.

일로스 비행학교·비행대는 임시정부 군무부 총장을 맡았던 노백린 장군이 김종립 선생의 지원을 받아 세웠으며 1923년까지 졸업생 77명을 배출했다. 특히 N-4D 2대를 이용선·이초 두 사람이 조종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청이 일로스 비행학교·비행대의 미국역사기념물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는 재미 언론인 한우성 씨와 장 소장이 공동 집필해 지난해 5월 출간한 ‘1920, 대한민국 하늘을

열다’라는 책 영문판이 한몫했다.

장 소장은 “이 책은 4년여에 걸친 심층 취재와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자료 외에도 미국 신문과 미국 정부 문서 등을 발굴해 작성됐다”면서 “국립공원관리청은 이 책이 객관적 사실과 사료를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4년 리버사이드 시에 설립한 최초의 한인 집단 거주지 ‘파차파 캠프’가 있던 곳을 사적지(Historic Site)로 지정하려고 한다”면서 “리버사이드 시 정부에 지난해 사적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리버사이드는 당시 오렌지 농업이 성해 일자리가 많았고, 파차파 캠프에는 10여 가구 50여 명이 모여 살았다”면서 “현재 땅 소유자는 가스회사 등 2곳으로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 소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군 파차파 캠프는 ‘도산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민주 자치공동체”라며 “도산 선생은 이곳에서 신민회와 흥사단을 조직하는 것을 구상했다”고 덧붙였다. **창**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세웠던 ‘일로스 비행학교·비행대’ 부지 모습



# 재외동포와 어음·수표 제도 위조·변조 여부 확인 필수

그 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해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해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한다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수표의 지급은 은행이 하기 때문에 수표 발행인은 당좌예금에 자금을 맡겨놓아야 하



사기범이 사용한 위조 자기앞수표

나 어음은 반드시 당좌예금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어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생기며, 또한 발행된 어음·수표는 계속 유통될 것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법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다. 이와 같은 기재 사항을 누락하면 어음·수표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발행인이 생각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수도 있다.

어음·수표 취득 시 필요 요건을 살펴보고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필요한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배서란의 배서가 연속돼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나아가 해당 은행에 어음·수표에 대한 사고 신고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배서가 연속돼 있다고 해도 거래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믿을 수 없다면 취득하지 말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의 배서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이미 기재한 사항이 정정된 경우 위조·변조가 돼 예상되지 못한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정·말소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에는 수표의 발행인은 어음의 경우와는 달리 민사 책임 외에 은행의 거래정지 처분과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분까지도 받게 되므로 어음보다는 수표를 취득하는 것이 그 대금 지급을 확실히 보장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음을 양도할 때는 배서에 의하게 된다.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어음의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쓰고, 자기 이름과 도장을 찍어 그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다. 어음 배서는 어음 발행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비록 발행인에게 신용이 없거나 돈이 없다고 해도 유력자(자금 능력이 충분한 사람)가 배서하면 그 어음의 신용은 높아지는

것이다.

수표도 어음에서와 같은 배서가 인정되고 있으나 수표 배서인은 지급 담보책임만을 부담하므로 지급인(보통 은행)은 배서할 수 없고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어음·수표가 사고가 나는 경우로 위조, 변조, 분실, 도난, 부도 등을 들 수 있다.

어음 또는 수표의 위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을 위조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변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기명날인 이외의 어음 또는 수표의 기재 사항을 변경·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 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부도란 어음·수표의 지급기일에 어음·수표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도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액면 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부도 어음·수표의 채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어음은 부도가 나더라도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발행인 등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수표는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참]**

## Q&A

### 어음을 공증 받아 두면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

어음에 대해 공증인이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 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미리 공증을 받아두면, 굳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공증인이나 공증 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으로부터 공증한 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 박근혜 대통령 멕시코 공식방문 에너지 사업 등 인프라 진출 발판



▲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4월 4일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일 멕시코를 공식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2일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3일 멕시코 국립 인류학 박물관을 방문한 뒤 한·멕시코 문화 교류 공연을 관람했다. 4일에는 한·멕시코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박 대통령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FTA 관련 실무 협의체를 올해 4분기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멕시코는 주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양자 및 다자 FTA 논의가 없는 국가였으나 이번 정상 회담을 계기로 FTA 협의 재개의 물꼬를 트게 됐다.

실무 협의체 구성은 FTA 협상 재개 전 단계로, FTA 품목 및 대상 등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논의 결과에 따라 협상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FTA 체결 시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주력 수출품의 관세 철폐와 멕시코 조달시장 진출 혜택 등이 기대되고, 대미 교역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로서는 자동차·농산품 수출 확대 등 동북아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한·멕시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170억 달러(약 19조 5천500억 원) 규모의 멕시코 에너지 분야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졌다. 또 원격 의료 시스템 수출 기반이 마련되고 의약품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역 및 투자 확대, 인프라 협력 등을 담은 34건의 MOU를 체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5천9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인프라 구축 투자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 기반이 마련됐다.

우리 기업이 참여를 추진 중인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토폴로밤포 III 복합 화력발전, PEMEX 정유공장 개선 및 열병합 발전, 몬테레이 가스 복합 발전 등 170억 달러에 이른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멕시코 주요 프로젝트 발주처 및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 각각 10억·5억 달러 규모의 수주 지원용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안중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멕시코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특히 에너지 분야에만 170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건의 원격 의료 협력 약정을 포함, 보건 분야에서 모두 8건의 MOU가 체결돼 원격 의료 시스템 수출 기반도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한, 의약품 제조공정 실사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GMP) 분야 협력 MOU도 체결돼 멕시코에 대한 의약품 수출이 매년 약 800만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원격 의료 시장은 2015년 2억 달러에서 2020년 1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및 표준·인증 분야 MOU 체결을 통해 멕시코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를 현재 1억 4천만 달러에서 2018년 3억 달러 규모로 늘리는 한편, 비관세 장벽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창\]](#)



## 소외계층 청소년, 미국 LA서 동포사회 체험



국내 소외계층 자녀와 탈북 청소년 13명은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미국 LA에서 재외동포사회를 체험했다.

국내 소외계층 청소년과 탈북자녀 13명이 미국 LA에서 재외동포 사회를 체험했다.

재외동포재단은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미국 LA한인상공회회의소(회장 로렌스 한)와 함께 '2016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청소년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청소년이 현지 견학과 체험을 통해 동포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LA한인상공회회의소는 참가자들이 연수 기간 한인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홈스테이'를 제공하고 체재비를 부담하는 등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모국과 동포사회 교류 증진에 힘을 보탤다.

참가자들은 남가주 어바인 한글학교 일일 교사 체험, LA시 올림픽경찰서 방문 및 한인 경찰과의 만남, 해시엔더 교육구 중학교·LA시청·LA한국총영사관 견학, 현지 중학교 학생들과의 스포츠 교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6일에는 LA 최초 한인 시의원인 데이비

드 류 의원의 면담을 통해 주류사회 리더로 성공한 지혜를 배우기도 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국내외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체험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동포 청소년 돕는 'OKFriends 봉사단' 출범



재외동포재단은 4월 9일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 초청연수'에서 통역·행사 진행 등을 도울 OKFriends 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국내 청년 90여 명이 고국을 찾아온 재외동포 청소년을 돕는 봉사단원으로 나선다.

재외동포재단은 국내에서 공부 중인 대학생·재외동포 유학생 91명을 '제5기 OKFriends(오케이프렌즈)' 봉사단으로 선발해 4월 9일 발대식을 열었다.

봉사단은 서울 장지동 아이코리아에서 열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소양 교육·커뮤니케이션 워크숍 등을 거쳐 올해 동포재단이 개최하는 차세대 동포 초청 행사에 투입된다.

봉사단은 고국을 찾아온 동포 청소년·대학생을 위해 통역·행사 진행·상담 등을 맡는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봉사단 활동을 계기로 국내외 청소년과 대학생이 국경 없는 우정을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민족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경험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포재단은 국내외 청소년과 대학생의 교류를 넓히고자 2012년부터 OKFriends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 재단·중앙교육연수원 손잡고 한글학교 지원



재외동포재단은 중앙교육연수원과 4월 25일 업무협약을 통해 재외한글학교와 중국 조선족 학교의 교사 역량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중앙교육연수원과 4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동포재단에서 재외한글학교·중국 조선족 학교의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교류·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한글학교 교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조선족 학교의 운영 선진화와 교육 기반 확충 등도 지원한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른 첫걸음으로 오는 5월 15~21일 '2016년 중국 조선족 학교 교장 초청 연수'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

# 우크라이나에 큰 감동 전해준 ‘K-클래식’

정승용 | SP글로벌 작곡·지휘자

지난 4월 1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우크라이나하우스에서는 공연 피날레로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당시 우크라이나 국립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나는 벅찬 감동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뒤로 하고 500여 관객을 대상으로 지휘했고 한인과 고려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리랑’을 따라 불렀다.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이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음악 대화’란 주제로 마련한 공연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 각국 외교관, 한인, 고려인 등을 초청한 행사였다.

유럽과 한국 무대를 오가며 지휘와 작곡 활동을 벌여온 나는 무대에서 한국 클래식의 우수성을 알린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당시 우크라이나 국립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된 건 1년 전 SNS를 통해 받은 한 통의 문자메시지 덕분이었다.

우크라이나 국립오케스트라의 단장인 헬레나 씨는 “우크라이나에서 개최되는 현대음악제에 내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싶다”고 연락해 왔다.

나는 2008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세계 4대 현대 음악제인 슈타이리셔 헤르스트(Steirischer Herbst)에서 ‘독백(Monolog)’을 출품해 아시아 최고작곡가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린 적이 있다. 그는 이 곡의 연주 음반을 들어보고 감동했다며 공연 요청을 해온 것이다.

이 곡은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이었던 이육사의 시 ‘독백’을 토대로 만든 작품이다. 세계 공통어인 음악을 통해 세계에 일제의 만행을 알리겠다고 만들었다. 세계 현대음악제에서 최고작품으로 선정될 때 유럽의 음악평론가는 “한 편의



드라마를 귀로 듣는 듯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국립오케스트라와 나는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장을 열어보자며 내가 작곡한 다른 작품을 함께 연주하고 피날레로 ‘아리랑’을 넣기로 합의했다.

양국 문화 교류를 위해 마련된 무대라서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곡들로 준비했다.

4월 7일 현지에 도착해 오케스트라와 연습을 시작했다. 유럽에서 18년간 활동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처음이었다. 그래도 낯설지가 않았다. 키예프가 구소련 시절부터 발레와 오페라 등 클래식으로 이름난 도시여서인지 내 집처럼 편안했다.

신임 이양구 대사를 비롯해 모든 대사관 직원이 너무도 따뜻이 맞이해 준 덕분에 긴장감을 풀고 연습에 집중할 수 있었다.





2



3



4

1. 지난 4월 1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우크라이나하우스에서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음악 대화'란 주제로 공연이 열렸다.
2.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 각국 외교관, 한인, 고려인 등 500여 명은 한국 곡이 연주 될 때마다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
3. 공연에 앞서 열린 리셉션에서 이양구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4. 공연 직전에 열린 기자회견에는 우크라이나 국영방송 등 20여 개 현지 매체가 취재 경쟁을 벌였다.

언어도 국적도 달랐지만 오케스트라 단원들과는 음악을 통해 서로 교감했다. 역사적으로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우크라이나로서인지 단원들은 금방 '독백'이란 곡에 빠져들었고 연주에 몰입했다.

이번 공연에서 나는 성서에 나오는 '오병이어(五餅二魚)'를 소재로 한 곡을 처음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연습 도중에 일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국영방송 인터뷰가 잡혀서 방송에 출연해 공연을 소개했다. 현지에서 한국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당일 행사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는 국영방송을 비롯해 20여 개 언론사가 취재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고, 1부에서 우크라이나 작곡가의 작품 4곡이 연주됐다. 이어서 무대에 오른 나는 '독백'을 시작으로 여러 곡을 지휘했다.

한 작품 한 작품 연주되며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고, 마지막 곡으로 이번 공연을 위해 편곡한 '아리랑'이 연주됐다.

한국인이 아닌 현지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통해 '아리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나는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고 급기야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관객을 향해 돌아서서 지휘를 했다.

당시 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객석에 앉아 있던 많

은 한국 청중도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나는 모두가 하나 되는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연주가 끝나자 수많은 관객이 약속이나 한 듯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내왔고 앙코르로 헨델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를 연주했다.

내 작품으로 해외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데다 연주자와 청중 모두가 몰아일체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의 감동은 음악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 싶다. 그 순간 나는 음악을 사랑하고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삶이 보답을 받은 기분이었다.

유럽의 많은 무대에서 지휘봉을 잡았던 나로서는 최근 들어 클래식에서도 한류의 바람이 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른바 'K-클래식'이 인기인 이유는 음악가의 역량이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경제 발전에만 몰두해왔지만 이제는 문화 교류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한국 곡이 연주된 것은 이제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여겨진다. 더 많은 작곡가, 연주가, 지휘자가 나와서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K-클래식'이 물결치기를 기대해 본다. **창**

# 어느 후예(後裔)들

정경선 마케도니아 | 2015 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꿈이질 않는구나  
내 후예들의 땅에서 들려오는 탄식과 죽음의 소리.  
2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널 생명 되게 해 준  
탓줄을 쥐어 잡고 널 죽어도 놓지 않더구나.  
모든 사람들 똑같이 어울리고  
어우러져 잘사는 그런 천국을 네게 만들어 주려고  
말밭굽 내며 쉬지 않고 앞으로 진군 진군하였었다.  
안타깝게도 내 청춘 다 지기도 전에  
난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가야 했다.  
네가 걷고, 뛰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보지 못한 체.  
유약해진 너를 비잔틴이 덮었었지.  
불가리아가 너의 고삐를 쥐어 잡았고  
500년간 터키 술탄에게 주인자리 빼앗기고  
땅도 내주고 고운 소녀들도 다 내 주고  
넌 숨죽이며 객으로 살아야 했었지.  
무거운 고개 들어  
너희 하늘 마음껏 쳐다보고 싶고  
너희 땅 갈아보고 싶고  
마음껏 웃고 춤을 추는 그날을 목말라 하였는데.  
너희를 둘러싼 무서운 적들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약소국의 세월 동안  
넌 코푸레에 메이고 멩에를 메고 가라는 곳만,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이 네 운명이 돼 버렸지.  
감히 내 자식들의 땅에 피비린내를  
감히 내 자식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아비가 자식을 지켜보려는  
피가 묻은 목소리를 넌 들었었느냐.  
그러나 나의 호통소리는 메아리처럼 안개처럼 너무나 힘이 없구나.  
피눈물과 피비린내를 먹고 너는 죽어 없어지지 않고 차라리 잡초로 자라났구나.  
밟으면, 뽑아 버리려면 더 힘 있게 위로 고개를 쳐드는.  
잡초로 시작된 너의 삶, 올해로 24살의 청춘.  
그렇게 해서라도 네 생명줄 부여잡고 살아야 한다.  
살아 있어야 한다.  
네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너를 지키고 다른 생명들을 낳고 낳아서  
살아 있어야 한다.  
내가 네게 만들어 주고 싶었던 그 꿈을 이루는 나의 후예들이 되는 그날까지. 창





# 바른 말 고운 말

**신소리 / 흰소리** 요즘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음악 신청 프로그램이나 각종 토크쇼에서 도를 지나친 저질 입담이 난무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토크쇼를 비롯한 각종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의 외모를 대상으로 해서 서로 깎아내리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어느 신문 기사에서 '오락 프로그램들이 연예인의 어처구니없는 흰소리로 시간을 때운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소리'는 무슨 뜻이고 또 이와 발음이 비슷한 표현인 '신소리'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 말일까요?

우선 '흰소리'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들먹거리면서 허풍을 떠는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소리'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다른 말로 슬쩍 받아서 엉뚱한 말로 재치 있게 넘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흰소리'는 허풍을 떨면서 하는 말이고, '신소리'는 장난기 있는 말을 뜻합니다.

**고수레 / 냇두리**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개업하면서 고사를 지낼 때, 무당이 굿할 때, 또는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조금씩 떼어 던지면서 '고수레'라고 외칩니다.

이 말의 유래는 단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고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불을 얻는 방법과 농사짓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해 먹을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고시네'를 부르면서 음식을 바쳤는데, '고시레, 고수레' 등으로 널리 쓰이다가 '고수레'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불뿔이나 불만이 있을 때 하소연하며 투덜거리는 것을 두고 '냇두리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원래는 무당이 죽은 사람의 넋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무당이 푸닥거리를 할 때 죽은 이의 혼을 불러내서 그 사람의 하소연을 받아 얘기함으로써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내는 것을 '냇두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어떤 분야에서 기예가 뛰어나 유명한 사람
- 운동, 놀이, 탐험 따위의 목적으로 산에 오름
-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경치
- 사람의 죽음을 알릴, 또는 그런 글
-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 배의 항해와 배 안의 모든 사무를 책임지고 선원들을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
- 밀가루·메밀가루·감자 가루 따위를 반죽한 다음, 반죽을 손이나 기계 따위로 가늘고 길게 뽑아낸 식품. 또는 그것을 삶아 만든 음식
-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상을 높여 이르던 말
- 소리 없이 방긋이 웃음, 또는 그런 웃음
- 누에나방의 눈썹이라는 뜻으로, 가늘고 길게 굽어진 아름다운 눈썹을 이르는 말. 미인의 눈썹을 이른다.
- 스포츠나 놀이로서 물속을 헤엄치는 일

- 지도에서 해발고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곡선. 평면도에 땅의 높고 낮음을 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땅이 우묵하게 들어가 물이 괴어 있는 곳. 대체로 못이나 늪보다 훨씬 넓고 깊다.
- 우리나라 삼국 시대의 삼국 가운데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지금의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 수도를 경주로 했다.
- 장미과 장미속의 관목을 통틀어 이르는 말. 높이는 2~3미터이며, 잎은 어긋나고 깃 모양이다.
- 국을 끓이는 데 넣는 고기, 생선, 채소 따위의 재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 예전에는 짐이나 수세미외의 열매 속 따위로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다.
- 사철 내내 잎이 푸른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소나무, 대나무 따위가 있다.
- 사람에게 해로운 세균을 죽이거나 약화시키는 데 쓰는 약. 알코올, 과산화수소, 크레졸, 포르말린 따위가 있다.

### ▶ 오른쪽 방향 열쇠

-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의 낚기 힘든 고개라는 뜻으로, 묵은 곡식은 거의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아니하여 농촌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말소리를 전파나 전류로 바꾸었다가 다시 말소리로 환원시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든 기계
- 농토를 갖지 못한 농민이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일
- 구멍구의 하나. 물에 빠져도 몸을 물 위에 띄우게 하며, 조끼처럼 입는 구멍조끼나 허리에 두르는 구멍띠 따위가 있다.
- 그림 따위의 미술품을 진열하여 진람하도록 만든 방

### ▶ 아래쪽 방향 열쇠

- 질병의 예방, 진료, 공중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시·군·구에 둔 공공 의료 기관
- 개살나무의 열매. 살구보다 맛이 시고 떫다.
- 부대 이동 시 중단 없는 전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대의 맨 앞에서 경계·수색 임무와 아울러 진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부대
- 매우 좁고 작은 개울
- 이름을 지음
- 화살이나 총알 따위가 겨냥한 곳에 바로 맞음
- 땅속에 있는 가스, 마그마 따위가 지각의 터진 틈을 통하여 지표로 분출하는 지점. 또는 그 결과로 생기는 구조
- 참쌀을 찌서 떡메로 친 다음 네모나게 썰어 고물을 문힌 떡

### ▶ 3월호 정답

	동	금강산	난	
총치	메		오로라	
미	탈	기		
초	복	독립군	낙	
대	사위		수면제	
장마		강	품	
		진통제		반
장기	원	자화자찬		
차	지문	살		

# 소금으로 숙성시켜 맛을 낸 안동 간고등어 시간을 가둔 염장 생선의 최고봉



1. 안동 간고등어를 만들기 위해 고등어에 소금 치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2. 안동 간고등어 정식



**안**동에 가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족보 자랑이요, 둘째는 고등어 맛이다. 종잡집만 300곳이 넘는다고 하니 양반 얘기가 더할 나위가 없을 테고, 그런데 고등어는 조금 뜬금없다.

몇 년 전만 해도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거래되는 고등어의 최상품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됐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크고 실한 놈들은 모두 안동으로 보내진다. 안동 간고등어가 입소문을 타고 나라 곳곳에서 유명세를 얻은 이후 생겨난 변화다. 안동 간고등어 간잡이(고등어에 소금을 뿌려 간을 맞추는 사람)로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아 명인으로 통하는 이동삼 씨는 “고등어는 원래 겨울에 잡히는 게 가장 맛있다”고 했다.

“여름 고등어는 싸요. 살결이 탄력도 없고 맛도 떨어

져요. 고등어는 겨울에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고게 참 맛있어요. 여기서 겨울 고등어만 냉동시켜 뒀다가 간고등어로 만들어요.”

안동 지역에는 (주)안동간고등어를 비롯해 10여 곳의 간고등어 업체가 가동 중이다. 간고등어 메뉴를 내건 식당은 셀 수 없이 많다. 경쟁이 세지다 보니 지역 내 최고의 간잡이로 통하는 이동삼 씨를 두고 과거 경쟁 업체 간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동삼 씨는 “열네 살부터 간잡이 일을 했다”며 “50년 넘게 하러니까 고생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사실, 안동 간고등어는 새로운 발견이 아니었다. 안동에선 이미 옛날부터 소금을 잔뜩 뿌린 간고등어를 신문지에 들들 말아 팔았다. 안동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라



▶ 안동 민속박물관



1992년 개관한 안동 민속박물관은 안동 지방 문화의 특징인 유교 문화, 특히 관혼상제를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방 특유의 민속놀이도 소개한다. 야외 박물관에는 보물 제305호로 지정된 석빙고를 비롯해 안동댐 건설시 수몰 지역에 산재하던 전통 가옥 등 20여 점의 중요 생활문화 자료를 옮겨 전시하고 있다. 안동댐 방면 월영교 부근에 위치한다.

문의: 054-821-0649, www.adfm.or.kr

▶ 안동시 여행 정보



• 당일 여행 코스

도산서원 → 봉정사 → 학가산온천 → 하회마을 → 영호루 → 안동 문화 관광단지

• 관광 안내

안동시 관광 문의 (054-856-3013)  
http://www.tourandong.com/main.htm

• 대중교통 (서울 - 안동)

고속버스 (3시간 소요)  
기차 (3시간 18분 소요)

• 식당 정보

양반밥상 (054-842-0090)  
목석원가든 (054-853-5332)



3



4

3. 안동 간고등어 구이  
4. 안동 간고등어 조림

고 해뵈야 80여km 떨어진 영덕이니 달리 도리가 없었다. 영덕 강구항에서 막 잡아 올린 고등어를 소달구지에 싣고 안동에 도달하려면 꼬박 이틀이 걸렸다. 구불구불한 200리 길을 걸어오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운송 도중에 고등어에 소금을 한줌 뿌려주는 방법뿐이었다. 고등어의 내장과 살이 막 상하려는 찰나에 소금 간을 했을 경우 최상의 맛이 만들어졌다.

“여기 간고등어가 유명해진 건 숙성 시간 때문이에요. 옛날 영덕에서 실어오던 때랑 똑같이 소금을 뿌리고 나서 24시간을 숙성시켜요.”

간고등어 공장 안에서는 아주머니 직원들이 고등어를 해동시켜 씻고, 배를 갈라 내장과 핏물을 빼고, 천일염을 뿌려 두 마리씩 포갠다. 말 그대로 염장(鹽藏)을 지르는 일이었다. 생선의 몸체 위에 적당히, 골고루 염장을 질러야 하기에 간잡이는 숙련된 이들이 담당했다. 간잡이를 하다보면 가시에 찔려 상처가 생기는 일이 잦지만, 하루 종일 소금을 움켜쥐고 일하는 탓에 굼거나 덧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현재 안동 간고등어는 숙성과 포장을 거쳐 홈쇼핑, 마트, 식당 등지로 팔려나간다. 요리는 주로 구이나 찜이다. 가마솥에 밥을 지어먹던 시절, 안동에선 쌀 위에 간고등어를 담은 놋그릇을 얹어놓고 장작불을 지폈다고 한다. 간고등어 식당을 운영하는 안동 토박이 박중길 씨는 “간고등어의 참맛을 느끼려면 구이가 좋다”고 했다.

“다로 간을 안 하기 때문에 담백합니다. 그릴에 구울 때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주 한 술 뿌리는 게 전부니까요. 고등어가 귀하던 시절에 할아버지가 밥상 위에서 조금씩 떼어 손주 손가락에 올려주시던 바로 그 맛입니다.” **창**

#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10월 제19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최를 앞두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7~21일 서울 등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각국의 차세대 동포를 초청해 분야별 포럼 및 주제 강연, 주요 인사 특강,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모국 문화 체험 등을 진행한다.

25~45세인 영주권자·시민권자 또는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정치·경제·법률·무역·언론·문화·스포츠·요리·과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오는 5월 31일까지 거주국 공관을 통해 지원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넷([www.korean.net](http://www.korean.net))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중점 추진 과제

####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제19회 The 19th KBS Global Korean Award

## KBS 해외동포상

### 추천안내

KBS는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거나 인류사회 복지 증진과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랑스러운 해외동포를 발굴하여 「KBS해외동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열아홉 번째가 되는 「KBS해외동포상」은 그 동안 700만 해외동포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동포애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분들을 아래의 안내에 따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부문 및 선발인원

- 가. 시상부문 ① 인문사회·교육 ② 과학기술·산업  
③ 문화예술 ④ 사회봉사 ⑤ 특별상  
나. 선발인원 각 부문별 1명(개인·단체 구분 없음)

#### 상금 및 특전

- 가. 상금 부문별 한화 3,000만원(개인·단체 구분 없음)  
나. 특전  
① 수상자 생애와 업적에 관한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② 수상자 부부 초청 시상식 방송  
③ 산업시설 방문 및 문화체험

#### 후보자 자격

- 가. 후보자 자격  
① 세계 각국에 진출한 재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함  
② 거주국 국적취득자, 영주권자, 체류자에 관계없이 모든 한민족(韓民族)을 대상으로 함  
③ 추천대상자는 생존자에 한함

#### 추천 자격

- 가. 재외공관장(총영사, 영사, 문화원장 포함)  
나. 국내·외 대학 총(학)장, 대학원장  
다. 국내·외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장  
라. 주한 외국공관장(총영사, 영사 포함)  
마. 대한민국 정부부처 장·차관 및 광역시도 단체장  
바. 역대 수상자 및 역대 심사위원

#### 제출서류

- 가. 추천서, 공적서 및 이력서 ※조정양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  
나. 부문별 제출자료  
① 인문사회·교육, 과학기술·산업 : 대표 논문 1편(필수), 관련 논문 3편, 대표저서  
※교육과 산업부문은 업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 증빙자료

- ② 문화예술 : 대표작품 3편, 실적자료  
③ 사회봉사, 특별상 : 업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 증빙  
다.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업적 증빙자료

#### 추천서 접수

- 가. 접수기간 2016. 4. 18(월) ~ 8. 31(수)  
나. 접수처  
• 150-7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사업부 KBS해외동포상 사무국  
전화, (02) 781-2236 /  
이메일, nov09@kbs.co.kr(09는 아라비아 숫자)  
• KBS Global Korean Award Secretariat #13  
Yeouigongwon-Ro, Seoul, Korea 150-790  
Tel. +82-2-781-2236 / Email, nov09@kbs.co.kr

#### 수상자 발표

2016. 12. 1(목) 방송(KBS 1TV 및 1라디오)으로 발표 및 개별통보 예정

#### 시상식

2017. 3. 6(월) KBS 1TV 녹화방송 예정

#### 기타 유의사항

- ①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KBS의 자료로 소중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② 반드시 추천자격이 있는 추천인(추천 기관장)의 이름, 기관명, 주소, 직위, 연락처를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추천안내문과 추천서, 공적서, 이력서 등의 양식은 KBS홈페이지 공지사항(www.kbs.co.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UROPE  
147,000

CIS  
480,000

CANADA  
224,000

USA  
2,250,000

CHINA  
2,590,000

JAPAN  
856,000

MIDDLE EAST  
26,000

AFRICA  
12,000

SOUTHEAST ASIA  
325,000

OCEANIA  
185,000

CENTRAL AND  
SOUTH AMERICA  
105,000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